



보도 관련 문의:

Tim Hallman

전화 +1 (415) 581 3711

이메일 pr@asianart.org

Annie Tsang

전화 +1 (415) 581 3560

이메일 annietsang@asianart.org



도자에 마음을 담다 Dual Natures in Ceramics: Eight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에서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한국 도자에 관한 전시가 열린다

이번 달부터 9 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SFO)을 바빠 오가는 여행객들은 한국 도자 관련 특별전시, 《도자에 마음을 담다 *Dual Natures in Ceramics: Eight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앞에서 잠시 그 걸음을 멈추게 될 것이다. 2014 년 5 월 17 일부터 2015 년 2 월 22 일까지 SFO 의 제 3 터미널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 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현대 미술 작품 75 점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 도자에 담겨있는 오랜 전통과 교차하는 현대적인 미감을 엿볼 수 있다. 《도자에 마음을 담다》전은 SFO 박물관과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이 공동 주최하며, 객원 큐레이터로 아시아 미술관의 김현정 한국 미술

번역권 도자기, 2014. 이수경 (1963~). 청자 파편, 금박. 작가 대여, SFO Museum 사진 제공.

-계속-

학예연구관이 장하리(아시아 미술관 한국 미술 학예사), 이지현(아시아 미술관 국제교류재단 인턴) 과 함께 전시 기획에 참여했다.

전세계적으로 수세기 동안 탐미의 대상이 된 비색의 고려 청자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 한국은 오랜 역사의 도자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도자에 마음을 담다》전은 김익영, 윤광조, 박영숙, 노경조, 구분창, 이인진, 이강호, 이수경 작가 8 명의 작품을 통해 21 세기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창의적인 도자 작품을 빛는 일이란 이 선구적인 작가들에게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다. 이들은 과거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한국의 도예를 한 차원 더 끌어올려, 전통과 현대의 대화를 통한 도자 예술의 새로운 해석을 모색한다.

이번 전시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작품은 윤광조의 <산의 꿈>과 이강호의 <분청병 63>이다. 이 두 작가는 분청사기 (15, 16 세기 조선에 유행한 백토물을 칠하는 방식으로 장식한 도자)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들은 기발하고, 투박하고, 때로는 대담한 도자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백토를 장식한다.

김익영과 박영숙은 조선 시대(1392-1910)의 백자에서 영감을 얻었다. 김익영은 그의 작품 <사발>에서 볼 수 있듯이, 새로운 방식의 표면 처리와 유약 연출을 시도한다. 박영숙 작가도 조선 시대로부터 전해오는 도자 전통을 받아들였다. 보자기 디자인을 접목시킨 도자 접시처럼, 작가의 청화 백자에는 오랫동안 잊혀진 옛 기법과 현대적인 감각이 어우러진다.

이수경은 버려지고 깨어진 도자기 파편들을 순금을 이용해 이어 붙여 도자 조각으로 재탄생시킨다. 이 작업은 전체와 순수를 통해 단편성과 불완전함의 관계를 모색한다. 올해 제작이 끝난 대형작 두 점을 포함한 총 다섯 점의 <번역된 도자기> 연작에서 보이듯이, 작가는 자유로운 형태와 친숙한 조각들의 예상치 못한 모습을 구축함으로써 버려진 도편 속에서 생명과 의미를 생성해낸다.

또 다른 주요 전시 작품은 구본창의 <Moon Rising III>이다. 이 작품은 12 개의 백자 달항아리 사진 연작이며, 일년 열두달을 상징한다. 각기 다른 개성과 성격을 지닌 항아리들은 전체에서 조화를 이루며, 삶의 순환을 암시한다. 또한, 작가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을 포함한 여러 박물관에서 찍은 도자들로 구성된 새 영상 작품을 이번 전시를 통하여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 도자들은 비디오 작품 속에서 2 차원에서 3 차원으로 변화되고 생명을 얻는다.

또한, 이번 전시에서는 노경조와 이인진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색다른 도자 기술도 선보인다. 노경조는 도자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마치 대리석처럼 보이는 ‘연리문’ 기법으로 유명한 작가이다. 그의 작품 <화병>에서 나타나듯, 작가는 단순하나 생동감 있는 기형에 섬세한 장식을 더하는 방식으로, 흙을 통한 우아한 감성을 표현한다. 옹기는 자기 이전부터 생산되던 토기의 한 종류로 한국 전통 부업에서 일상 옹기로 주로 쓰였다. 이인진의 작품 세계는 바로 이 옹기로부터 시작되나, 작가는 여기에 새로운 유약을 실험적인 방식으로 응용하여 확장한다

이 전시는 보안 구역 내에 위치하여, 샌프란시스코 국제 공항 제 3 터미널을 통과하는 비행기표를 지닌 여행객들만 관람할 수 있다. 관람은 무료이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소개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이종문 아시아 미술 문화 센터는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예술 기관 중의 하나이며,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1 만 8 천점이 넘는 6000 년 역사의 아시아 예술 작품을 소장한 보고이다. 역사 유물과 현대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는 풍부한 예술 경험을 통해,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은 관람객에게 과거의 숨겨진 면면을 드러내고, 여기에 생명을 불어 넣어 새로운 예술, 새로운 창조성과 새로운 사고의 촉매제의 역할을 한다. www.asianart.org

샌프란시스코 공항 박물관 소개

SFO 박물관은 공항 환경을 좀 더 인간적이게 변모시키고, 샌프란시스코의 특별한 문화 생활을 보여주고, 여행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0 년, 공항

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었다. 1999 년, 전미 박물관 협회의 승인과 2005 년의 재승인을 받았으며, 공항 안에 만들어진 박물관들 중 승인된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현재, SFO 박물관은 미술, 역사, 과학, 문화에 관한 전시가 교대로 열리는 공항 곳곳의 약 20 개의 전시 공간, 샌프란시스코 공항 위원회의 항공 도서관과 루이스 A. 터펜 항공 박물관, 상업 항공의 역사에 관련된 상설 컬렉션을 그 특징으로 한다. 현재와 과거의 전시, 소장품 등의 더 많은 정보는 www.flysfo.com/museum. 를 참조.

###